

한국 사회의 계급 경계 기준들에 관한 비교연구 - '신중간층'과 노동자 계급간 경계문제를 중심으로 -

김 석 준*

目 次

1. 서 론
2. 계급 분석의 틀
3. 자료 및 변인의 조작화와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결 론

1. 서 론

이 글은 현단계에서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많은 사회 계층·계급 연구자들이 동의하듯이 현대사회에 관한 계급구조론의 핵심적 쟁점은 '신중간층'의 계급 위치와 계급 성격을 어떻게 파악·판별하느냐로 모아진다. 이 글에서도 역시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를 윤곽잡는 데 '신중간층'의 위치부여와 성격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신중간층'의 계급 위치를 계급 구조상에 제대로 부여할 수만 있다면 전체로서 계급 구조를 구성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 있다. 이 글의 전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신중간층'과 노동자 계급간 경계 문제는 물론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계급 경계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계급 분석의 틀을 수립한다.

둘째, 여러 이론가들이 다양하게 제시해온 '신중간층'과 노동자 계급간 계급 경계의 기준들을 정리하여 경계 기준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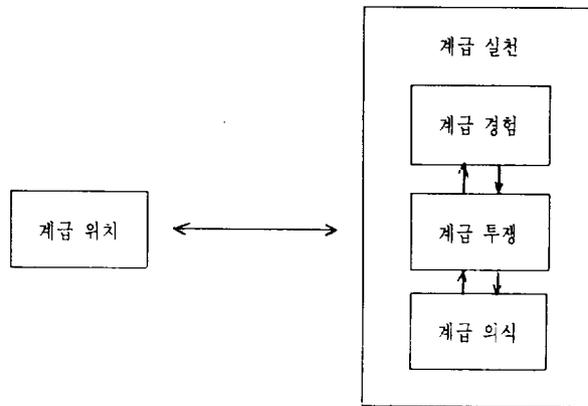
셋째, 세워진 분석 틀에 입각하여 구해진 자료에 대해 양적 분석을 가하고 결과의 이론적 함의와 결론을 얻어낸다.

*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2. 계급 분석의 틀

종래 계급에 대한 접근방법은 구조적 접근과 과정적 접근의 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는 Althusser, Poulantzas, Wright, Carchedi 등의 접근방식에서 후자는 Thompson, Katznelson & Zolberg, Parkin, Giddens, Bourdieu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양자의 접근방식에 대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변동이란 구조와 행위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결정하는 일방적 관계의 것이 아니며, 계급에 있어서 구조와 과정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분석 틀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Katznelson의 병렬적 분석틀을 상호규정적인 틀로 전환시킴으로써 얻어진다. 이 틀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계급분석의 틀

결국 위의 분석틀은 특정 사회의 구조적 특징이 계급 위치에 반영되며, 행위자들의 계급으로 성립하려는 실천 곧 계급 실천은 계급 경험과 계급 투쟁, 계급의식의 구성요소로 구분될 수 있지만 위치와 실천은 상호규정적인 관계임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검증할 사항은 계급 위치에 따라 계급 실천의 구성요소들이 어느 정도 차이있게 보유되는가(이질화 경향)의 여부와 각 계급 위치내에서 그러한 계급 실천의 구성요소들이 어느 정도 균질적으로 보유되는가(동질화 경향)의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자의 경향보다 후자의 경향이 계급으로 성립하는 데 더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계급 위치간에 계급 실천의 구성요소들의 보유나 행동화 경향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각 계급 위치내부에서의 동질화 수준이 낮다면 이는 그 계급 위치 내부에서의 분파화 내지는 파편화를 더 의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Burriss가 정리한 것을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노동자 계급과의 계급 경계 논쟁으로 수렴시키고자 한다.

Burris는 종래의 그러한 논의가 ① 육체노동 직업 대 비육체노동 직업, ② 생산적 노동 대 비생산적 노동, ③ 감독 대 비감독 피고용인, ④ 전문관리직 종사자 대 일상적 피고용인, ⑤ 자격취득 노동자 대 자격 미취득 노동자라는 다섯가지 계급 경계 논쟁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타당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5개의 계급 경계중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계급판별의 기준인지를 밝힐 때에 '신중간층'의 계급 위치와 성격규명의 문제에도 접근할 길이 있을 것이다. 앞서 논한대로 이러한 접근이 궁극적으로는 특정 사회의 계급 구성을 판독하는데에도 핵심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제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된다. 뒤의 논의를 간추리기 위해 위의 5개의 계급 경계를 열거된 순서대로 각각 경계 기준 1, 2, 3, 4, 5에 의한 계급 경계 구분으로 명명한다.

3. 자료 및 변인의 조작화와 분석방법

위의 분석틀에 의한다면 본 연구가 다룰 변인들은 계급 위치와 계급 실천의 세 구성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각각은 다음과 같이 조작화한다.

- ① 계급 위치는 Burris가 정리한 5개의 계급 경계를 수용·조작화한다.
- ② 계급 경험은 노동의 성격, 수입의 성격으로 측정한다. 노동의 성격은 구상의 자율성, 실행의 자율성, 업무자율의 만족도, 탈속련화, 업무의 표준화, 보상의 만족도, 승진전망의 다섯차원으로 세분 측정하고, 수입의 성격은 개인의 월 평균 수입, 가구의 월 평균 수입으로 측정한다.
- ③ 계급 의식은 계급간 거리감, 친노동자 의식, 불평등 현상에 대한 전망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도록 조작화·측정한다.
- ④ 계급 투쟁은 정치적 관심도와 조직적 항의의 경험의 두 차원으로 조작화·측정한다.

4. 분석결과

4-1. 계급 위치간 이질화 경향의 분석

이질화 경향의 분석결과는 <표 1>, <표 2>, <표 3>과 같다. <표 1>은 계급 실천의 각 항목에 대해 5개의 경계기준별로 구분되어 한 쌍을 이루게 된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 계급 위치간의 평균의 차이를 T 검증해서 얻은 것이다. <표 2>는 5개의 경계기준에 의해 각각 2개의 계급 위치로 분리되어 전체 10개로 나누어진 계급 위치들에 대해 그들간의 집단 평균을 변량분석하면서, 각 집단간에 그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면서도 가장 이질적인 것으로 판정된 집단들을 추출한

것이다. 후자와 같이 추출하기 위해 Scheffé 다중비교검증(Scheffé multiple comparison test)을 수행했다. <표 3>은 <표 2>의 결과를 간략히 재분석한 것이다.

이 표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이질화 경향에 관한한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치간의 이질화 경향은 자격취득자, 감독자, 전문관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인구층을 한 집단으로 하고, 생산적 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기준에 맞는 인구층을 또 하나의 집단으로 삼아 비교할 때 가장 크다. 전자의 집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세 기준간에 중첩 또는 배제되는 부분의 성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두 집단간의 그러한 이질화 경향은 계급 실천의 항목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둘째, 이질화 경향에 관한한 기존의 5개 경계기준들은 계급 실천의 매우 부분적인 항목들에서만 현실적합성을 지닌다. 이는 경계기준들을 교차시킬 때 중간에 있게될 인구층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다룰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의 분석결과만으로는 이 중간 인구층이 매우 모호하고, 상황규정적이며 모순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만으로도 또 다른 동질적인 범주의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셋째, 이질화 경향만을 두고 판단한다면, 자격취득자, 감독자, 전문관리자의 성격을 지닌 인구층이 이른 바 신중간계급이라는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주목되거나 위의 분석에서는 이를 소홀히 취급할 수 없겠고, 같은 맥락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측면으로서 육체노동자의 성격을 공유한 인구층이 노동자계급으로 형성가능하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되겠다. 그러나 위의 중간 인구층은 현재의 상태만으로 명명하자면 '모순적 중간층'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성격이 아직은 명료히 규명되지 않은 탓에 이상의 결과만으로 계급구조의 전체상을 그려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일단은 이러한 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그려낸 계급 구조의 대략적 윤곽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4-2. 계급 위치내 동질화 경향의 분석

<표 4>는 5개의 경계기준에 의해 구획된 각 계급 위치내에서의 동질화 경향을 볼 수 있는 계수를 산출·정리한 것이다. 앞에서 동질화 계수라 이름지은 이 계수는 그 수치가 작을수록 동질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는 <표 4>에 정리된 동질화 계수들을 계급 실천의 항목별로 서열화한 후, 그 평균서열의 차이를 비교하여 얻어진 것이다. 비교는 Friedman 검중에 의존했고,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별도로 수행했다. 계급 실천의 항목들이 서로 동일한 차원은 물론 아니지만 이는 간명한 토론을 위해 선택된 방법이다. 이에 의하면, '신중간계급' 위치들중 내적 동질화 경향이 가장 큰 것은 자격취득자 집단이고, 그 다음이 전문관리자 집단, 감독자 집단이며 비생산적 노동자는 그 수준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이질화 경향의 분석에서 자격취득자, 감독자, 전문관리자의 성격을 지닌 인구층이 신중간계급으로 형성가능하다고 시사됐던 것을 일정하게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이들이 특정의 노동자계급 위치들과 비교해서 가장 이질적일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지금은 내적 동질화의 경향도 높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분석 틀에 의할 때 이제 하나의 계급으로서 그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듯하다. 물론 이 세 기준이 서로 중첩, 배제하는 부분의 인구층에 관한 성격구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같은 <표 5>에서 노동자계급 위치간의 동질화 경향은 이질화 경향의 분석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진 않고 있다. 만일 이질화 경향의 분석 결과가 노동자계급 위치에서도 승인되려면 <표 5>의 육체 노동자와 생산적 노동자 집단의 내적 동질화 경향의 수준은 높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비감독자와 일상적 피고용인, 자격미취득자의 그것은 낮아야 한다. 그래야 앞서 명명했던 '모순적 중간층'이 독립적 성격을 지닌 존재로서 배타적으로 하나의 계급 범주를 이룰 수 있음이 같이 포착될 수 있지만 현재의 결과는 그 반대인 것이다. 곧 내적 동질화 경향은 비감독자, 일상적 피고용인, 자격미취득자 집단의 순으로 차츰 작아져 생산적 노동자 집단에 가서 그 수준이 가장 낮아지는 것이다.

우선 이 결과는 '모순적 중간층'이 신중간계급보다는 노동자계급에 포섭될 수 있는 성격을 더 많이 견지하는 까닭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해본다. 이런 추측은 사실상, 비감독자, 일상적 피고용인, 자격미취득자 집단을 구성하는 인구층이 '모순적 중간층'과 육체노동자 집단을 하나로 묶을 때의 인구층과 대략 일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이런 추론은 '모순적 중간층'의 대부분이 배제된 감독자, 전문관리자, 자격취득자 집단이 '신중간계급' 위치중에서는 내적 동질화 경향이 크다는 데서도 일정하게 지지된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을 수용하게 되면, 생산적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는 육체 노동자 집단과 이 '모순적 중간층'이 서로 동질적인 하나의 계급, 곧 노동자 계급을 형성한다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런 계급 경계의 확정은 '모순적 중간층'과 육체노동자 집단간에 계급 실천에 있어서 어떤 의미있는 차이도 나타나지 않아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이 '모순적 중간층'과 육체노동자 집단간에 계급 실천에 있어서 이질화 경향이 의미있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면 위의 계급 경계 설정에 관한 해석을 수정하거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승인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모순적 중간층'과 우리가 확정짓고자 하는 신중간계급간의 관계도 확인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격취득자, 감독자, 전문관리자의 기준을 동시적으로 모두 충족하는 인구층만이 신중간계급으로 형성가능한가? 아니면 그런 기준 중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신중간계급에 속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고 이 후자의 인구층까지는 '모순적 중간층'인가의 여부가 그것이다.

4-3. 종합적 토론

토론할 절차는 이렇다. 우선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대상자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비육체 노동자이면서 자격취득자, 감독자, 전문관리자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 전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인구층으로 이를 집단1이라 한다. 두번째 집단은 피고용자로서 그러한 세 가지 기준중 하나 또는 둘을 충족시키나 세 기준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인구층으로 이를 집단2로 삼는다. 여기에는 육체 노동자이지만 이 조건에 맞는 인구층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세째는 비육체 노동자중 위의 세 기준을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구층으로서 집단3으로 명명한다. 네째는 이상의 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육체노동자로서 집단4가 그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순적 인구층'은 집단2와 집단3으로 분리되며, 다음은 이들간의 관계를 따져보는 일이 남게 된다. 이를 위해 <표 6>을 작성했다. <표 6>은 위와 같이 구분된 4개 집단을 6가지로 조합하여 서로 계급 실천에서 어느 정도 이질적인지를 본 것이다. 각 조합에 T 검증을 가함으로써 이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다.

첫째, 경제기준 3과 4, 5의 '신중간계급' 위치에 속할 수 있는 기준을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비육체 노동자인 집단3은 육체 노동자인 집단4와 함께 단일의 계급을 형성하지만 노동의 성격에서 드러난 차이로 인해 이들은 단일 계급 속의 두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명명하자면 집단3은 그 드러난 성격으로 보아 모순적 노동자계급 또는 노동자 계급 주변층이라 하겠고, 집단4는 노동자 계급 핵심층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히 <표 4>와 <표 5>의 동질화 경향 분석결과를 수용하여, 집단1과 집단2 역시 단일의 계급을 형성하지만 양자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실재한다는 점에서 이들도 단일 계급 속의 두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자격취득자이면서 전문관리자이고 감독자인 전자의 집단1은 그런 의미에서 신중간계급 상층 또는 신중간계급 핵심층이라 이름지을 수 있겠고, 후자의 집단2는 그러한 세 기준의 하나 또는 둘만을 충족하지만 이후 집단1로의 진입이 충분히 기대된다는 뜻에서 신중간계급 하층 또는 신중간계급 주변층이라 지칭할 수 있다.

따라서 세째 한국 사회에서 피고용자의 계급구성은 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2계급 4계층으로 구조화됐다 판단되거니와, 우리가 선정한 5개의 경제기준의 현실적합성도 밝혀졌다. 곧 전체적으로 경제기준 3과 4, 5의 현실적합성을 승인할 수 있으며, 기준1과 2는 단지 노동자계급의 분파를 인식하는 데만 제한적으로 유효할 뿐이다.

4-4. 피고용자의 계급구성과 직업 및 인구학적 특징

<표 7>에 그 내용을 정리했다.

5. 결 론

1)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를 서로 다른 계급에 위치시키는 시도는 현단계의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산업화와 자본축적에 병행하여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폭이 있었지만 이는 곧 이어 다양한 노동통제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분화가 현격히 진행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계급 범주로서 비생산적 노동은 하나의 동질적 성격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육체·비육체 노동의 이분법도 타당한 계급 경계의 기준일 수 없다. 한국사회의 특수한 전통과 역사적 배경이 화이트 칼라 직업에 대한 선호를 부추겨 왔고, 명목적이든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든 양자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주장도 지금에와서는 수용하기 힘들다. 이는 비생산적 노동이 그러한 것과 많은 부분 유사하게 비육체 노동 일부의 질적 분화 또는 일정한 노동의 격하가 목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분법은 노동자 계급내의 분파를 식별하는 데는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Ehrenreich & Ehrenreich의 전문관리자 계급론(PMC), Wright의 착취계급모델은 본 연구의 결과(경계기준 3, 4, 5에 대한 논의)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본 연구가 확인한 신중간 계급의 상층에 대해서만 보충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며, 후자는 조직재와 기술재의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계급 위치의 구분을 무려 12개로 제시하고 있지만 각 위치의 독특한 성격을 질적으로 구획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본 연구 결과는 그의 모델이 자격과 기술수준에 따른 직위를 연속적으로 총화시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4) 다른 경로를 거쳤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른바 지식노동자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 첫째 신중간 계급 판별의 중요기준이 노동과정 안에서의 지식의 통제 및 질적 수준(경계기준 3, 4, 5)들인 것으로 밝혀졌고, 둘째 신중간 계급 내부에 상층과 하층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점이 그렇다.